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386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meta-emotion philosophy) 내용분석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 지 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meta-emotion philosophy)내용분석

-The Contents Analysis of mother's meta-emotion philosophy in the sadness and anger-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 지 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meta-emotion philosophy)내용분석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지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지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오지현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7
C. 용어의 정의 8

Ⅱ. 이론적 배경 9
A.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9
B.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12
C.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측정 16

Ⅲ. 연구방법 20
A. 연구 대상 20
1. 연구 참여자 선정 20
2. 연구자 훈련과정 22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23
B. 연구 절차 24
1.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24
C. 측정 도구 25
1.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인터뷰 질문지 25
D. 자료 분석방법 28
1. 내용분석 28

Ⅳ. 연구결과 30
A.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분류체계 30
B.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내용분석 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내용분석.....32
2.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내용분석.....37
3.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비교.....42

Ⅴ. 결론.....45
A. 결론 및 논의.....45
B.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55

참고문헌
부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인터뷰 단계별 절차
<표 3> 분석 대상 질문 추출 과정
<표 4>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인터뷰 질문
<표 5> 내용 분석 과정
<표 6>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분류체계
<표 7> 슬픔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내용분석 범주표
<표 8> 슬픔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내용분석 범주표
<표 9>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내용분석 범주표
<표 10> 분노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 반응 내용분석 범주표
<표 11>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비교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Contents Analysis of mother's meta-emotion philosophy in the sadness and anger

Park Ji Seon
Advisor : Prof. Oh Ji-Hyun Ph.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my mother's meta-emotion philosophy in the sadness and anger of emotional sadness and anger about the feelings of confidence on the psyche of the mother on meta emotions, accident and for children on the psyche of the see what the relationship of a reaction, sadness and anger, by dividing by a mother for each emotion to better understand and can boost children's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 had their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Gwangju, Nursery and kindergarten three at the age of five in 3 years old in infancy, a mother with children 18 mother's meta-emotion philosophy from an interview used as an analysis.

The measurement of tools includes Gottman (1991) ' the emotion - meta interview ' child consultation and parental education based on expert used the configuring, get advice in the custody of two questionnaires.

The data gathered in this research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of ways. Named after the lower categories divided into higher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 the content of an interview. The Katz, Gottman and higher categories, Hooven (1994) developed with meta emotional coding system from (emotion - meta coding system) much of the categories use for private purposes. In addition, each lower categories and higher categories between child guidance material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causal one, professor of child an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dolescent physician Dr. A single, the doctor's course student to review the two players coefficient of consensus among the evaluation of a total of four, and had a procedure to save Fleiss kapp had yielded a factor.

Summariz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s follows.

In brief, for from his mother's meta-emotion philosophy and philosophy of the meta-emotion category in the meta emotions of anger a mother for emotional mother's ' emotional awareness of children and "'emotional acceptance', on the emotional response appeared to be seen the difference between a subcategory of 'emotional regul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he mother - child sadness and anger in emotional division of the emotional stresses the importance of its relationship with sadnessf and anger and for each emotion of the individual mother subjectivity with diversified can look at his mother's meta-emotion philosophy due west as well as the starting point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relationship with mother and child data she said he was provided by significanc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매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서적 반응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때문에 정서는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이고, 통찰이 필요한 것이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정서를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환경간의 관계를 맺고, 유지 혹은 변화하려는 시도와 동일하게 보고 있으며(Barrett & Campos, 1987),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즉, 정서 또는 정서 발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 발달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발달 연구가들은 정서가 사회적 의사소통, 성격 기능, 목표 성취, 심지어 인지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부모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정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서와 정서 발달을 사회적 적응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등장하면서, 정서경험과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Gaber & Dodge, 1991; Gottman & Katz, 1989; Thompson, 1994). 좀 더 살펴보면 정서는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긍정적 정서든지 부정인 정서든지 정서적 각성은 모두 환경에 대한 적응적 대처의 중심과정이다(Mandler, 1982).

이와 관련하여 인간 발달의 과정 중 유아기는 유아가 생의 초기 양육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정서적 자극을 제공받으며 그 안에서 타고난 정서적 반응들을 표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기본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배우게 된다(안라리, 2008). 특히 유아는 성장과정 중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이해 및 사회인지적 발달을 이루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에 발생하고 경험하는 정서들은 계속해서 발달 시기에 따른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의 정서능력은 미래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Salovey & Sluyter, 1997; Shields et al., 2001), 만일 유아가 정서능력을 늦게 습득하게 되면 사회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분열된 행동을 보이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게 된다(Hubbard & Coie, 1994).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대처 능력은 이후 발달시기의 정서발달, 성격형성, 사회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은 양육자의 도움을 얻어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여서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변화시키는 자신만의 대처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유아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유아에게도 부정적 정서경험은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정서이며, 환경과 조율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와 생애 최초로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정서에 대해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Lewis & Saarni, 1985). 가정에서 부모의 정서표현을 관찰한 유아는 특정한 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Denham et al., 1994; Eisenberg et al., 1998), 자신이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Dunn et al., 1991).

또한 Salovey와 Mayer(1990)는 유아의 정서발달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놓인 유아기 자녀를 잘 지도한 부모들에게는 스스로 감정을 잘 진정시키는 자녀가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은 부모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의 반응방식은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인 여러 측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aarni,1991)에 따라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듯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 자녀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과 역할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윤경, 2012; Davidov & Grusec, 2006). 다시 말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사회화 과정의 첫 시작이며, 자녀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 안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자녀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를 통해 친구를 사귀는 방법과 그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 놀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역할이 자녀의 정서와 관련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상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accoby & Martin, 1983). 특히, 유아기에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행동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물론 성격과 가치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후기 자녀기와 청소년기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Kennedym 1992).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정서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주로 자녀의 정서, 사회성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유형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Kim & Yoo, 2010; 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it, 1996; Park & Kim, 2005)이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즉각적이며, 일관성 있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더욱 명랑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어 또래관계 내에서 거부되지 않고 잘 적응하게 되므로(Pattit, Dodge, & Brown, 1998), 사회적 유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의미가 포괄적이고,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isenberg, Cumberland와 Spinard(1998)는 정서와 관련된 양육행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서관련 양육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어머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자녀와 정서적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정서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 Fabes, 1994; Gottman et al., 1996; Lee, Choi & Sung, 2007; Park. 2004).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정서 또는 정서의 표출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Kring, Smith & Neale, 1994), 자녀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어머니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Dunn & Brown, 1994; Siegel & Hartzell, 2004). 또한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이렇듯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부정적 정서가 정서의 사회화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부정적 정서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좌절되거나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나게 되므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자녀는 자신만의 적응적 체계를 갖게 되어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게 된다(LaFreniere, 2000, 정윤희, 2002 재인용). 그러므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 반응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정윤희,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감소시켜 정서조절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발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이를 무시하면 자녀는 거부당했다고 느껴 화를 내게 되고 화난 정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표출되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Bradley, 2000 재인용). 이처럼 어머니의 정서반응은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과 더 나아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어떤 특성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탐색연구들도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정서와 관련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ubin & Chung, 2006), 이는 자녀의 정서에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양육행동을 조절해나갈 수 있다고 밝힌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Dix, 1991).

하지만 어머니들은 정서반응 방식에 대한 각자 개인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유익하지 않고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그 정서를 최소화하고 무시하며,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Gottman et al., 1996). 반대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Gottman et al., 1996). 즉, 정서에 관한 신념은 일종의 기준으로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정서 반응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자녀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때론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정서에 대하여 갖는 신념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형성하는 요인이며 이러한 내적 가치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정윤경, 박혜진, 2012), 주로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경험은 자녀 양육에 미치는 높음을 보여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선행연구(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선, 정문자, 2007; 전현진, 박성연, 1997; Belsky & Vondra, 1993; Fincham, 1994)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은 어머니 본인의 자녀 양육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기 경험 중 부모로부터 수용 받은 경험이 많고 독립심을 많이 지지 받았을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양육경험을 한 경우에는 성인으로 성장 한 후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고, 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을 많이 한 경우 본인도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Sroufe, 1998; Epstein, 1983). 특히 어린 시절 적절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였을 경우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Marchand & Hock, 1998; Martin & Waite, 1994),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한 정서와 양육기술의 부족으로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렵고,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남소현, 2000). 또한 유아기에 적절치 못한 양육을 받은 성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잘못된 양육행동을 한다고 하며 양육의 직접적인 세대간 전이를 시사하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자기 부모가 자신들을 키울 때 사용하였던 양육방식을 그대로 반복하여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였다(Belsky,1984; 박성연,1997).

이렇듯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애착경험, 성격특성 및 양육효능감 등(김미성, 전귀연 2003)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양상에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관한 아동기 경험 뿐만 아니라 신념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우선,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경험과 신념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검증할 수 있는 Gottman(1996)의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의 개념을 사용하려한다.

먼저 상위-정서(meta-emotion)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정서와 인지의 세트로서 정서에 대한 정서, 생각, 철학 등을 포함한다(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재인용).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parental meta-emotion)은 어머니가 갖는, 자녀의 정서 및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 생각, 은유, 철학 그리고 접근양식들로 조직된 심리적 세트라고 정의된다(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재인용). 즉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란 일반적인 상위정서철학의 특수한 한 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위정서철학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자신의 자녀일 때 그리고 자신을 특정한 개인의 '어머니'로서 인식하는 주체적 자각이 존재할 때를 의미한다(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재인용).

또한 상위정서철학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위기분(김유진, 신희천 2013; 김현주, 2005; 김아신, 2009; 이정민, 2010)과 정서신념(최연화, 2012),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권연희, 이종희 2005; 김지연, 남은영, 2011; 노지영, 정윤경, 2010, 오지현, 2013)으로 일부 연구된 바 있다. 하지만 상위정서철학이 정서에 대한 정서를 의미하여, 정서자체보다는 더 상위적 측면을 의미한다는 점에 앞서 설명한 개념들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정서신념은 자녀의 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철학, 태도라는 점에서 상위정서철학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위정서철학에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양상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서 신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경우는 어머니의 상위정서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상위정서철학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성태희, 2013; 송수정, 2013; 신주혜, 정윤경, 2013; 정윤경, 박해진, 2012). 선행 연구들은 상위정서철학과 관련한 유사한 개념들로 진행된 연구들이 있고,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및 정서코칭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Ramsden & Hubbard, 2002). 하지만 연구마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 구성개념이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일관된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위정서철학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 Gottman(1996)의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조작적 정의와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측정하는 연구방법으로 인터뷰 질문지의 응답내용을 점수화하여 결과를 일반화시켰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각기 다른 경향차를 검증할 수 없고, 개인의 사회적·심리학적인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인 내용분석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응답내용을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하고 다각적인 응답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머니 상위정서철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으로 부정적 정서인 슬픔과 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노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통합하여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슬픔, 분노, 불안, 죄책감 등의 정서는 같은 부정적 정서 안에 속해있지만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슬픔, 화는 부정적인 정서의 반응으로서, 특히 화는 쾌, 불쾌 중에서 불쾌의 질을 뜻한다. 예를 들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할 때 못 만지게 하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먹게 한다거나, 입기 싫은 옷을 강제적으로 입히려고 할 때(이은경, 1995) 화가 유발되며 자신의 요구가 저지되거나 자아가 상처를 입었다고 느꼈을 때, 원인이나 장애로 지목되는 대상에 대해 표출하는 감정 상태가 화이다. 슬픔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없거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잃어 버렸을 때,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 하고 싶은 일에 좌절감을 맛보았을 때 일어나는 정서반응이다(이은경, 1995) 정보처리 과정이나 복합적인 상황, 인지적, 감정적, 수동적인 상황에 따라 정서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즉, 부정적 정서는 슬픔, 분노, 불안, 죄책감 등 정서에 따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서와 정서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단순히 정서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차원을 연구하는 것 보다 정서의 더 다양한 유형들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Duclos, Laird, Schneider, Sexter, Stern, & Van Lighten, 1989; Green & Sedikides, 1999; Lerner & Keltner, 2000; Niedenthal, Halverstadt, & Setterlund, 1997; raghunathan & Pham, 1999; Smith, 1989). 이와 같은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슬픔과 분노에 따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인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심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여 어머니-자녀간의 정서적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하였다.

<연구문제>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어떠한가?
1)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어떠한가?
2)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어떠한가?

C.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상위정서(meta-emotion) : 정서에 대한 정서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정서를 말하며, 정서에 대한 감정, 생각, 철학 등을 포함한다. 정서 자체보다는 더 상위적 측면을 의미한다(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2.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어머니가 자신과 자녀의 정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직화된 느낌과 생각, 태도, 신념 등을 말한다. 상위 인지적 개념으로 단순히 정서를 느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과 타인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사고, 조직화된 양식, 철학 및 신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즉, 어머니 자신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느낌과 사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이러한 반응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A.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 최초로 만나는 대상이자 세상을 이해해나가도록 하는 통로이다.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배워가고, 환경에 적응하며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은 부모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의 반응방식은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인 여러 측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Saarni, 1991).

Salovey와 Mayer(1990)은 자녀의 정서발달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는데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정서발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에게 가족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이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유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며,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일차적인 사회화 대행자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 정서의 표현을 장려하고 부정적 정서는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 조절을 지도한다.(유안진·이지선, 1999; Denham, 199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방법은 양육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가 전반적인 양육방식과 구분 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자녀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Eisenberg 외(1998)는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정서표현성, 정서에 대한 대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부모의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ity)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서를 표현할 때 자녀는 부모가 표현한 정서를 반복해서 관찰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정서표현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지 등을 모델링한다(송하나, 2006; Boyum & Parke, 1995;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예를 들면,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어머니는 자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송하나, 2006),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 할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성(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친사회적 행동(Denham, Renwick-Debarde & Hewew, 1994), 정서이해력(이혜련, 최보가, 2002; Denham & Kochanoff, 2002) 등 자녀의 정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lovey와 Mayer(1990)는 자녀의 정서발달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놓인 자녀를 잘 지도하는 부모들에게는 스스로 감정을 잘 진정시키는 자녀가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녀는 화가 난 상황에서 자신을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래 관계에서도 인기가 높고 교사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처럼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 자녀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윤경, 2012; Davidov & Grusec, 2006).

그러나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Gottman, Katz, & Hooven, 1996)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Cassidy, Parke, Bukowsky, &braungart, 1992; Eisenerg, Fabes, Carlo & Karbon 1992;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Gamer, Jones & Miner, 1994), 이는 부모가 자녀의 기쁨,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슬픔, 두려움,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우울할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Dix, Reinhold, 그리고 Zambarano(1990)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이 기분 좋을 때보다 화났을 때 자녀에게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Eisenberg 등(1992)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최소화반응이나 처벌적 반응을 사용하는 것은 교사가 측정한 자녀의 인기도나 사회적 기술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ck(1984) 역시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전략을 사용하면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이들의 부정적 정서의 발생과 불안의 증가를 유발한다고 하였다(Gross & Levenson, 1993). 이밖에도 부모 자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이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부모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Cole, Mishel, & Teti, 1994; Dix, 1991, 1992).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이 다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Cassidy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크게 지지적이거나 비지지적인 태도로 나눌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Fabes, Eisenberf & Bernzweig, 1990).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비지지적인 경우 자녀의 정서각성 수준을 높이고 이러한 각성에 대한 조절이 어려워져 결국 자녀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isenberg et al., 1996). 반면, 지지적인 반응은 타인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의 정서를 나타내는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 각성을 줄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증진된다(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y, & Reiser,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이후 자녀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며 행동을 조절하는 등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며(Ldaa & Le Sieur, 1995)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정서발달은 어머니가 정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정서와 관련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ubin & Chung, 2006). 자녀의 동기, 의도 및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어머니라면, 자녀의 정서에 정서적으로만 대처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양육행동을 조절해나간다(Dix, 1991). 그리고 어머니들은 정서사회화 방식에 대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유익하지 않고 반드시 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그 정서를 최소화하고 무시하며,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Gottman et al., 1996). 즉, 정서에 관한 신념은 일종의 기준으로서, 어머니가 구체적인 정서관련 양육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평소 자기 자신과 자녀의 정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B.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어머니와 자녀 간에 교류되는 정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있어서 애정, 신뢰, 기쁨, 관심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관계가 결국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Emde, 1980).

또한 유년 및 자녀기의 중요 인간 관계에서 높은 정서가(征西價)를 갖는 상호작용이 이후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며, 또한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응이 개인의 삶의 건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한다면, 유아기에는 정서적 경험, 특히 실패나 상실, 좌절로부터 오는 부정적 정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도록 학습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Dunham, 1998;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7; Sroufe, 1996).

유아기에 대부분의 행동은 부모를 보고 모방하듯이 자신의 정서 경험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부모의 행동과 대응 방식을 모방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로 입증되고 있는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부모 변인, 자녀 변인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가 자녀의 정서조절 및 적응적 정서발달과 심리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Denham, 1989; Eisenberg, Fabes, Schaller, Carlo, & Miller, 1991: Eisenberg & McNally, 1993; Gottman, Katz, & Hooven, 1996).

먼저, Gottman과 그의 동료들(1996)은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신념이 구체적인 양육을 통해서 심리적 조절능력과 같은 유아의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Gottman, Katz, & Hooven, 1996).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실시되어,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태도가 상위정서철학과 자녀의 적응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결과(배지우, 2010)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상위-정서(meta-emotion)의 역할을 강조한 가족치료 전문임상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학자 Gottman은 부모가 자신 및 자녀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parental meta-emotion philocophy; P-MEP)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의 고양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표출을 억제하고 긍정적 양육행위를 조직시켜서 자녀의 자율생리반응에 영향을 주고 다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전반적 수행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여기서 상위-정서(meta-emotion)란 정서에 대한 정서를 의미하는데, 인지에 대한 인지를 뜻하는 상위-인지(meta-cognition)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리고 상위-정서구조(meta-emotion structure)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정서와 인지의 세트로서 정서에 대한 정서, 생각, 철학 등을 포함한다. 그 다음으로 부모 상위정서철학(parental meta-emotion)은 부모가 갖는, 자녀의 정서 및 부모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녀와 부모 자신이 정서에 대한 자각, 생각, 은유, 철학 그리고 접근양식들로 조직된 심리적 세트라고 정의된다. 즉 부모 상위정서철학이란 일반적인 상위정서철학의 특수한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위-정서를 느끼는 타인이 자신의 자녀일 때 그리고 자신을 특정한 개인의 '부모'로서 인식하는 주체적 자각이 존재할 때의 상위-정서를 '부모 상위정서철학'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부모상위정서철학은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이나 기분인식과 같은 정서관련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은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를 동기화하는 내적 기제로 작용하는 요인이다(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은 도구 관습적 신념과 정서 관계적 신념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정서를 표현하는 행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 및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사회 관습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며, 후자는 정서의 표현이 대인관계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와 친사회적 속성을 반영한다(최해연, 민경환(2005). 이와 같은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정서표현에 대한 높은 갈등과 억제를 유발하며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적응 지표와 연결된다(최해연, 민경환, 2005). 이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강한 부모들은 자신 및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억제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 상위정서철학은 정서지능과 유사하게 기분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기분인식이란 Swinkels와 Guiliano(1995)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서, 정서 처리과정에서 첫 단계인 정서에 대한 인식과정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한다. 즉, 자신의 기분 상태에 대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말하는데, 기분에 대한 자발적 주의 집중이 수반된 기분검색과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히 범주화하고 명명하는 기분명명의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요소들은 주로 부모상위정서철학의 요인 중 정서에 대한 자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자녀 발달의 연구에서는 전 생애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어린 시절 경험이나 심리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태도나 행동은 자신이 성인이 되어 가족을 형성했을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므로 어머니의 자녀기 경험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정미경, 2003).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이 과거의 경험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경험한 성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강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볼 때 어머니의 과거인 자신의 어렸을 적 경험만이 아니라 현재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적인 상황, 가족 관계에서의 경험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경험, 특히 정서와 관련된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고 어머니 자신에 대한 정서를 수용하고 조절하는 것이 자신의 정서를 다루고, 내적 안정 상태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자신의 자녀의 정서경험의 기회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하여 자녀가 느끼는 정서를 인식, 수용 및 조절하는 것과 관련시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촉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관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로서 끊임없이 중요해 지고 있어 부모상위정서철학이 아닌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여러 정서들 중에서도 부정적 정서인, 슬픔과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자녀의 슬픔과 비슷한 우울정서와의 관계에 대해 일부 연구되어온바 있고(성태희, 2013; Katz & Hunter, 2007),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부정적 요인에 반응하는 자녀의 탄력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자녀의 탄력성은 자녀 자신의 분노 수준을 예측한다는 연구(신진주, 2015)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슬픔과 분노를 각각의 독립된 정서로 분리하여 보지 않고, 부정적 정서로 통합하여 어머니 상위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철학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슬픔과 분노의 정서는 구분하여 각 정서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정서는 특성상 연구자마다 정서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서가 주관적·생물학적·목적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Reeve, 2001). 일례로 정서의 주관적 측면을 살펴보면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아무런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데 반해, 다른 자녀는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05). 또한 우리나라 유아들이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인 슬픔과 분노는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서를 아무런 규제 없이 표현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김경희, 1997 재인용) 특히, 분노와 슬픔정서는 다른 부정적 정서보다 사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Reichenbach & Masters, 1983).

이렇듯 기존의 연구자들은 슬픔과 분노의 정서나 생각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공통된 생각을 찾으려고만 하였으며, 슬픔과 분노와 같은 특정 정서에 대해 사람마다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슬픔의 정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슬픔과 같은 특정한 정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다르다. 몇몇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 좋게 느끼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Gottman, 1997). 또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속상해하며, 다른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좋게 느끼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분노를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Gottman, 1997).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슬픔과 분노의 차이를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슬픔과 분노를 인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부정적 정서의 생리학적 발현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를 보면 분노의 경우 기본적으로 맥박, 혈압, 아드레날린 분비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슬픔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마상 융기에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Henry, 1986). 그리고 분노를 느낀 사람들은 각성의 증상으로 빠른 심장 활동, 불안감 등을 경험한 반면 슬픔을 느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Shields, 1984).

Schwarz(1990)의 연구에 의하면 슬픔은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오기 위한 인지전략을 일으킨다. 따라서 슬픔은 더 체계적이고 더 완전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반면에 분노를 느낀 사람은 충동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쉽다(Kuhl,1983). 그래서 분노를 느낀 사람의 경우 다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울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슬픔 상황에서의 정서조절 전략에서 자녀는 어머니 앞에서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슬픔을 조절하고, 수동적인 철회를, 분노 상황에서는 공격성을 나타낸다(Zemand & Garber, 1996)는 점과 주요한 사회화 대행자인 부모 앞에서 정서조절에 관한 자녀의 결정이 부분적으로는 부모와의 정서적인 의사소통의 역사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Garner et al., 1997)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슬픔과 분노 정서를 구분하여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슬픔과 분노 두 가지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시키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를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슬픔과 분노 정서는 유아를 거쳐 자녀기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에서도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슬픔과 분노 정서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Zeman & Shipman, 1997 재인용).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들의 연구방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터뷰를 통해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탐색함으로 어머니의 정서관련 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C.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측정

상위정서철학은 1996년도에 Gottman과 Katz, Hooven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부정적 정서인 슬픔과 분노를 연구하면서 정립한 것이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국외(Gottman,1997; Katz et al., 2012; Ramsden & Hubbard, 2002; Stettler & Katz, 2014)에서는 이미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이서리, 남은영, 2012; 송수정, 2013; 윤혜린, 2013 신진주, 2015; 최난이,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Gottman,1997; Katz et al., 2012; Ramsden & Hubbard, 2002; Stettler & Katz, 2014; 이서리, 남은영, 2012; 송수정, 2013; 윤혜린, 2013 신진주, 2015; 최난이, 2015)에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은 인터뷰 방식이며, Katz와 Gottman(1986)이 개발한 부모 상위정서 인터뷰 질문지(PMEI: Parent Meta-Emotion Interview)와 Katz, Gottman과 Hooven(1994)이 함께 개발한 상위정서 코딩체계(Meta-Emotion Coding System)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연구의 경우 부모 상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정서 인터뷰 질문지를 Nahm(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질문지와 코딩체계가 쓰이고 있다. 상위정서 코딩체계는 인터뷰 내용에 따라 어머니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와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를 점수화 한다.

부모 상위정서 인터뷰는 연구자가 인터뷰 시작 전에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 느낌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 느낌 등을 질문하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진행된다.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30분~60분정도 소요되며, 인터뷰 내용을 상위범주체계에 따라 분석하게 된다.

부모 상위정서 인터뷰 질문지의 상위 범주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수용, 감정 표현의 경험에 대한 조절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자녀 정서에 대한 수용, 자녀가 정서를 경험할 때 어머니의 감정 코칭 유형 및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으로 구분된다(Katz, Mittman, & Hooven, 199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는 어머니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예를 들면, “어머님은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슬플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최근에 경험하신 슬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이 질문 문항에 포함된다. 질문 문항은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로 조직된 3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딩 체크리스트 항목은 ‘매우일치’, ‘일치’, ‘보통’, ‘불일치’, ‘매우불일치’, ‘알수없음’의 6점 척도로 코딩된다. 다음으로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는 어머니에게 자녀가 경험하는 슬픔 및 분노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이가 슬퍼할 때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최근에 ○○이의 슬픔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이 질문 문항에 포함된다. 질문 문항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서수용, 정서코칭, 정서조절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딩 체크리스트 항목은 ‘매우일치’, ‘일치’, ‘보통’, ‘불일치’, ‘매우불일치’, ‘알수없음’의 6점 척도로 코딩된다. 즉, 상위정서철학 인터뷰 질문지를 통한 상위정서 코딩체계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수용, 코칭, 조절에 대한 7가지 상위 범주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을 분석하게 된다. 각 범주에서 산출된 총점은 슬픔 및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의미하는 점수로 측정이 된 점수가 높은 점수일수록 정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다는 것이며, 낮은 점수일수록 정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이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상위정서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을 측정 및 분석하기 위해 양적으로 체계화시킨 상위정서 코딩체계(Katz, Gottman & Hooven, 1994)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주관적 정서 경험을 양적으로 체계화하고 객관화 시키는 연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표집크기에 따라 상위정서철학의 하위 변인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신뢰도 계수가 낮게 나타나거나 관련 하위변인들의 요소를 탐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어머니 개인의 경험들을 응답한 자들이다. 이러한 접근은 어머니 자신과 어머니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 및 가치관을 양적으로 체계화 하고 객관화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참여자의 응답내용을 코딩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총점에 대한 결과로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낮음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 및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및 반응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경험과 양상에 대해서 수량화 했을 경우 이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정동(2013) 연구에서는 참여자 표집크기에 한계점 때문에 모-자녀 의사소통이 상, 하 집단 간 차이를 확인은 할 수 있었으나, 상위정서 철학이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성태희(2013)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상위정서철학의 하위 변인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자녀에 대한 정서조절의 신뢰도 계수가 낮게 나타나 관련 하위변인들의 요소를 탐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송수정(2013)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보다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관계에 대해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의 하위차원인 정서조절 변인이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어 정서조절 변인을 세밀하게 평정할 수 없었다. 신진주(2015)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자녀의 분노수준 간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봤을 때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계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며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필요함을 제한점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분석 연구방법인 내용분석을 통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신의 정서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주관적 응답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직접 체험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정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고, 심도 있게 해석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어머니 자신의 정서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태도, 신념, 가치관을 갖고 자녀 양육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와 자녀의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수용하고 지지 할 수 있는 어머니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근거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3곳을 통해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기 전에 기관을 따로 방문하여 원장 및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연구 참여를 위해 연구 목적이 설명된 가정통신문을 담임교사들을 통해 배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어머니를 수집하였다.

만 3세에서 만 5세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가 부정적 정서표현이 증진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이 시기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에 자녀가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 더 민감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이정순, 조희숙, 2005)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이후 자녀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며 행동을 조절하는 등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Ldaa & Le Sieur, 1995)을 고려하여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살펴보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선정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녀 초기 및 중기, 후기 그리고 청소년기 위주이므로 본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참여기준에 부합하는 자들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연구자의 질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말로 표현이 가능한 어머니
· 만3세에서 만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 유아기 자녀의 정서표현을 경험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어머니
·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를 허락한 어머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위와 같은 참여 기준에 부합하면서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양육현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연구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표 1>과 같이 참여에 동의하는 18명을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자녀의 성별은 총 18명 중 남자는 12명이고, 여자는 6명이였고, 연령은 만3세가 4명, 만4세가 8명, 만5세가 4명, 만6세가 2명이다. 양육에 영향을 주는 가족 관계는 부모가 18명 형제나 자매가 15명,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이 각각 1명이고 기타로 삼촌이 1명이다. 부모의 연령은 20대가 4명, 30대가 9명, 40대가 5명이었고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명, 전문대 졸업이 1명, 대학교 졸업이 10명, 대학원 졸업이 5명이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18(100%)

항목	구분	빈도
자녀의 성별	남	12(66.6)
	여	6(33.3)
자녀의 연령	만3세	4(22.2)
	만4세	8(44.4)
	만5세	4(22.2)
	만6세	2(11.1)
동거	어머니	18(100)
	아버지	18(100)
	형제/자매	15(83.3)
	할머니	1(5.5)
	할아버지	1(5.5)
	외할머니	1(5.5)
	외할아버지	1(5.5)
	기타	1(5.5)
부모님 연령	20대	4(22.2)
	30대	9(50)
	40대	5(27.7)
부모님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2(11.1)
	대학교 중퇴	0(0)
	전문대 졸업	1(5.5)
	대학교 졸업	10(55.5)
	대학원 졸업	5(27.7)

2. 연구자 훈련과정

내용분석은 다원화된 방법으로 자료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특정한 이슈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방법이다.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신뢰할 만한 연구 도구가 되어야 하며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자질은 연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용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단위를 규정하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내용범주에 넣어서 집계하고 기술적, 설명적으로 진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아동·청소년 상담을 실시하고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아동상담전공 교수와 상담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슈퍼비전과 지도를 받음으로써 부모상담에 대한 역량을 키워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인 어머니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이에 대한 질적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 중 '고급연구방법론' 수업과 질적연구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방법론에 대한 훈련 또한 지속하여 연구분석과정 및 결과해석에 대한 질을 높이려 하였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대한 윤리는 매우 중요하고 윤리적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자의 소속학교, 전공, 이름,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안내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의도없이 진행되었고 중간에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기본정보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참여에 따르는 위험이나 혜택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고 파기 할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분석과정에서 인터뷰 중 필사 된 참여자의 이름이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삭제한 후 응답내용만 사용하였으며 응답지는 별도로 보관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가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약속을 한 후 이루어졌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 절차

1.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5~10월 동안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광주광역시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3곳을 선정하여 먼저 원장님과 조사에 대한 설명과 허락을 구한 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안내 하였다. 가정통신문을 보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어머니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후 응답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우선 어머니와의 라포형성을 위해 평소 자녀양육,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궁금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를 한 후 상위정서철학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린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질문을 시작하였고 응답내용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종료하였다.

자료가 수집된 현장은 연구자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부터 우선적으로 섭외하여 자료 수집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4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필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최종본을 만든 후 응답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상담 및 부모교육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최종 수정 후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쳤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 문서화된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인터뷰에 응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어머니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참여자를 존중하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응답에 경청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인터뷰 단계별 절차

1단계 인터뷰 준비	-	자료수집	→	자료 정리	→	인터뷰계획
2단계 인터뷰 진행	-	①참여자와 인사를 나누며 라포 형성 ②연구의 목적과 인터뷰에 대한 안내 ③상위정서철학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④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인터뷰 ⑤어머니의 생각과 자녀 양육과 관련한 이야기 후 인터뷰 종료				
3단계 인터뷰 분석	-	-동의서 및 참여자 기본정보 정리 -인터뷰 녹음파일 정리 -응답내용 분석				

C.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질문지

본 연구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분석하기 위해 질문지와 인터뷰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시된 질문의 내용을 Gottman과 동료들(1991)이 제작한 'The meta-emotion Interview'를 토대로 아동상담 및 부모교육 전문가 2인의 자문을 얻어 구성한 질문지이다.

본 연구의 사용된 질문지는 Gottman과 동료들(1991)이 제작한 'The meta-emotion Interview'의 본래의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아동상담 및 부모교육 전문가 2인의 자문을 얻어 반복적인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응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명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예비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수정하고 연구 목적에 맞고, 이해에 도움이 되며, 인지하기 쉬운 단어와 어머니의 눈높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에 맞춘 단어를 선택하여 질문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어머니 자신이 경험하는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한 질문과 자녀가 경험하는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한 반응 질문으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최종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에 대한 질문은 “슬픔이라는 정서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어머니가 경험하신 가장 슬펐던 상황에 대해 말해 주세요. 그때 신체반응이나 내면에 일어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나요?”, “어머니의 슬픔 정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나요?“, ”어머니가 슬픈 정서를 느끼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었을 때 정서가 최소화되며 극대화 되나요?“, ”어머니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어머니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은 슬픔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주었나요?”, “ 어머니의 삶에 슬픔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등 이였고 분노에 관한 질문은 동일하였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질문은 “어머니의 자녀는 슬픔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나요?”, “어머니의 자녀가 슬픔을 경험하고 표현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해주었나요?”, “자녀에게 반응을 해줄 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나요?″, ″어머니의 과거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나요?″, ″최근의 자녀가 경험한 슬픈 상황을 답해주세요. 또는 한번정도 발생했던 생생한 예를 답해주세요.″등 이였다. 상황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질문들도 하였으며 이러한 질문으로 응답내용을 수집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분석 대상 질문 추출 과정

질문지 문항구성 + 예비조사	→	질문 추출	↔	전문가 자문	→	최종 질문 확정

<표 4>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인터뷰 질문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 질문	①슬픔/분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②어머니가 경험하신 가장 슬펐던/화가 났던 상황에 대해 말해 주세요. 그때 내면에 일어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나요? ③어머니는 슬픔/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④어머니의 슬픔/분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나요? ⑤당신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은 슬픔/분노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주었나요? ⑥어머니의 삶에 슬픔/분노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자녀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질문	①어머니의 자녀가 슬픔/분노를 경험했을 때 주로 어떻게 표현했을 하나요? ②자녀의 슬픔/분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나요? ③이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나요? ④어머니의 과거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나요? ⑤최근의 자녀가 경험한 슬픈/분노 상황을 말해주세요. 또는 한번정도 발생했던 생생한 예를 답해주세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자료 분석 방법

1. 내용분석

내용분석 방법의 사전적 의미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수량적으로 분류하고 일정기준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방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내용분석 방법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서 말하는가?"라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전통적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적합한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찬욱 김형수 2008). 특히, 설문조사 방법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회과학 분야 주제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당성이 높은 경우가 있다(오익근, 2000).

또한 개인이나 사회의 의사소통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기록된 자료 즉, 신문, 일기, 상담기록서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터뷰를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내용분석 방법은 기록되거나 면담내용인 비수량적 자료를 양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분석 대상에 대한 내용 분석표를 만들어 항목이나 내용 등을 구분 한 후, 만들어진 표를 토대로 하여 빈도를 세거나 부호화하여 수량화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문제에 따라 인터뷰 질문지에 따른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단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분석 방법에서 말하는 분석단위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내용범주에 넣어서 집계하고 기술적, 설명적으로 진술 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김민아, 1014). 본 연구의 목적은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분석대상인 응답내용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분석단위로 채택하였다. 먼저 각 질문마다 분석단위로 주요 단어들을 추출한 후 추출한 단어들을 유사한 의미, 맥락으로 분류하였다. 내용의 범주를 분류하고 정의하여 이에 따라 부호화하여 수량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즉,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대해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조화한 질문지를 통해 얻은 응답내용 중 포괄적이고 막연한 내용들을 구체적, 체계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따라 범주화하고 부호화하여 수량적인 자료로 바꾸어 처리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사된 내용에 있어서 응답 내용을 토대로 분석단위는 하나의 문맥을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하고 원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여 각 세부 개념에서 출발해서 큰 범주로 묶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각 세부 개념과 상위 범주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상담 관련학과 교수 1인과 아동·청소년 전문의 1인, 박사과정생 2인이 각각 검토하고 수정한 세부 개념과 상위 범주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중복되는 범주를 유목하여 분류하는 절차를 가졌다.

<표 5> 내용 분석 과정

단어 추출		분류화		범주 구성		수량화
- 각 질문마다 주요 단어들을 추출한다.	→	- 추출한 단어들을 유사한 의미, 맥락으로 분류한다.	→	- 분류한 단어들에 대한 상위범주를 구성한다. - 상위범주 끼리도 유목화 한다.	→	- 각 범주마다 구체적으로 분류 및 제시하여 (하위범주) 전체적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함께 제시하여 수량화 한 후 결과 해석 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A.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내용을 수량화시켜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내용에 대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의 세부 내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체계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기록된 내용에 있어서 분석단위는 하나의 문맥을 하나의 경험 항목으로 간주하였고, 원 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응답내용을 세부개념에서 출발해서 큰 범주로 묶어가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참여자 1인당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응답내용을 진술하여 전체 빈도수는 실제 연구 참여자 수보다 더 많이 집계가 되었다. 빈도는 백분율로 수량화하였으며 실제 응답 내용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축어록으로 기록하고 분석 자료에 그대로 기술하였다.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의 상위범주는 Katz, Gottman과 Hooven(1994)이 함께 개발한 상위정서 코딩체계(Meta-Emotion Coding System)에서 구분한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각 하위범주와 상위 범주 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상담 관련학과 교수 1인과 아동·청소년 전문의 1인, 박사과정생 2인이 검토하는 절차를 가졌다. 총 4인의 평정자간 일치계수를 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평정한 결과 Fleiss Kapp계수가 .792 가 산출되었고 평정자간 일치도가 안정적임이 확인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분류체계

구분	항목	상위범주
슬픔과 분노	어머니의 상위정서	정서 인식
		정서 수용
		정서 조절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 인식
		정서 수용
		정서 코칭
		정서 조절

이처럼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응답 내용 분류체계의 상위범주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 및 코칭을 하는지에 따라 정서 인식, 정서 수용, 정서 조절, 정서 코칭으로 분류된다. 상위범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의 상위범주인 정서 인식은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 어떻게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정서와 구별이 가능한지,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어느 정도인지, 슬픔과 분노 정서와 관련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해 느껴지는 또 다른 정서가 있는지,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어떠한지,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 등 이다. 정서 수용은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서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정서를 표현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는지, 정서 표현에 편안함을 경험하는지, 정서 표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서 표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주길 원하는지 등 이다. 정서 조절은 어머니가 자신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 어떻게 극복하고 조절하는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슬픔과 분노 정서 조절이 가능한지, 정서 극복을 위한 방법이 있는지, 극복 방법의 효과는 있는지 등이다.

다음으로 슬픔과 분노에 대한 자녀의 정서반응의 상위범주인 정서 인식은 어머니가 자녀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경험으로 어떻게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지를 말한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슬픔과 분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를 다른 정서와 구별이 가능한지, 자녀가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자녀가 슬픔과 분노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녀가 슬픔과 분노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는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 등이다. 정서 수용은 어머니가 자녀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얼마나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표현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표현을 얼마나 공감하는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 경험과 어머니의 정서 경험과의 관련성,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전환 등이다. 정서 코칭은 어머니가 자녀의 슬픔과 분노 표현에 대해 어떤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슬픔과 분노 정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자녀가 슬픔과 분노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 조절과 극복에 효과적인 방법을 아는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 조절에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이다. 정서 조절은 어머니가 자녀의 슬픔과 분노에 대해 개입한 대처방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를 존중해주는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 표현에 대한 대처방법이 적절한지, 슬픔과 분노 정서 인식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자녀가 슬픔과 분노 정서를 경험할 때 상황과 정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해 자녀가 스스로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 등 이다.

B.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내용분석

1. 슬픔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내용분석

슬픔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을 내용분석하기 위해서 어머니 상위정서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상위범주는 어머니 상위정서를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을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 정서코칭 구분하였고, 각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슬픔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인식 하위범주는 ‘속상함’, ‘성장’, ‘관계깨어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울함’, ‘자연스러움’, ‘걱정과불안’, ‘능률정하’, ‘무영향’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수용은 ‘받아들여짐’, ‘반감’, ‘외면’, ‘공감적반응’, ‘부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서조절은 ‘있는그대로표현’, ‘생각전환’, ‘문제해결집중’, ‘소극적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슬픔에 대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에서 정서인식 하위범주는 ‘신체표현’, ‘표현에 대한 생각‘, ’압박감‘, ’언어표현‘, ’정서표현‘, ’표현에 대한 느낌‘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서수용은 ’조력‘, ’해결방법제시‘, ’자율‘, ’공감‘, ’공유‘, ’훈육‘, ’혼란스러움‘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서코칭은 ’수용‘, ’대화‘, ’신체접촉‘, ’해결방법제시‘, ’무수용‘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조절은 ’건강한표현‘, ’사회적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범주에 따라 분석한 내용과 빈도는 다음의 <표 7>,<표 8>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슬픔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내용분석 범주표

N=18(100%)

구분	항목	상위범주	하위범주	세부내용	빈도	총계
슬픔	어머니 상위정서	정서 인식	속상함	눈물이 나는 것	18(100)	27(38.8)
				마음이 아픈 것	5(27.7)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	2(11.1)	
				안타깝다	1(5.5)	
				힘들다	1(5.5)	
			성장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5(27.7)	9(50)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3(16.6)	
				소중하고 행복함을 더 느끼게 해주는 것	1(5.5)	
			관계 깨어짐	관계가 깨어지는 것(헤어짐, 이별, 분리)	5(27.7)	7(38.8)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1(5.5)	
				도덕적으로 기대나 일에서 벗어나는 것	1(5.5)	
			우울함	외로워지는 것	2(11.1)	7(38.8)
				우울한 것	2(11.1)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것	1(5.5)	
				마음과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1(5.5)	
				초라해지는 것	1(5.5)	
			자연스러움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히 느껴야 하는 것	2(11.1)	6(33.3)
				자연스러운 것	2(11.1)	
				없어서는 안되는 것	1(5.5)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것	1(5.5)	
			걱정과 불안	걱정과 불안을 만드는 것	3(16.6)	6(33.3)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1(5.5)	
				예측할 수 없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1(5.5)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1(5.5)	
			능률 저하	다른 일에 집중이 되지 않게 하는 것	1(5.5)	1(5.5)
			무 영향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	1(5.5)	1(5.5)
		정서 수용	받아들여짐	모든 것을 수용해 주었을 때	8(44.4)	18(100)
				나의 감정과 생각에 동의를 해주었을 때	6(33.3)	
				타인이 먼저 알아차려 줄 때	2(11.1)	
				공감대 형성이 될 때	2(11.1)	
			반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줄 때	8(44.4)	16(88.8)
				일방적으로 자신의 잣대로 생각해 버릴 때	7(38.8)	
				반복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1(5.5)	
			외면	침묵과 회피	7(38.8)	11(61.1)
				이해하지 못함	3(16.6)	
				내가 원하는 것을 수용해 주지 않음	1(5.5)	
			공감적 반응	공감(토닥여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줌)	3(16.6)	4(22.2)
				격려와 지지	1(5.5)	
			부담	눈물과 하소연으로 감정 이입	1(5.5)	1(5.5)
		정서 조절	있는 그대로 표현	신앙적인 힘으로 기도를 함	4(22.2)	7(38.8)
				온전히 감정을 느낌	3(16.6)	
			생각 전환	의식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차단	2(11.1)	5(27.7)
				스스로를 설득시켜 생각을 전환	2(11.1)	
				긍정적인 생각하기	1(5.5)	
			문제 해결 집중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음	2(11.1)	3(16.6)
				감정에 대해 되짚어 보며 스스로 해결하기	1(5.5)	
			소극적 반응	수면	1(5.5)	2(11.1)
				그냥 놔둠	1(5.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슬픔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첫째, 어머니의 슬픔 정서에 대한 인식이다. 속상함이 27명(38.8%), 성장이 9명(50%), 관계 깨어짐이 7명(38.8%), 우울함이 7명(38.8%), 자연스러움이 6명(33.3%), 걱정과 불안이 6명(33.3%), 능률저하가 1명(5.5%), 무 영향이 1명(5.5%)로 응답하였다. 그 중'눈물이 나는 것','마음이 아픈 것','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안타깝다','힘들다' 로 속상함에 대한 응답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슬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속상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소중하고 행복함을 더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다음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슬픔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서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 둘째, 어머니의 슬픔 정서에 대한 수용이다. 받아들여짐이 18명(100%), 반감이 16명(88.8%), 외면이 11명(61.1%), 공감적반응이 4명(22.2%), 부담이 1명(5.5%)로 응답하였다. 그 중'모든 것을 수용해 주었을 때','나의 감정과 생각에 동의를 해주었을 때′ ,'타인이 먼저 알아차려 줄 때','공감대 형성이 될 때'에 정서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응답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줄 때','일방적으로 자신의 잣대로 생각해 버릴 때','반복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다음으로 나타나 슬픔 정서가 극대화 되어 수용된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어머니의 슬픔 정서에 대한 조절이다. 있는 그대로 표현이 7명(38.8%), 생각전환이 5명(27.7%), 문제해결 집중이 3명(16.6%), 소극적 반응이 2명(11.1%)로 응답하였다. 그 중'신앙적인 힘으로 기도를 함','온전히 감정을 느낌'으로 정서를 조절한다는 응답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절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찾음','감정에 대해 되짚어 보며 스스로 해결하기'가 다음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슬픔은 문제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8> 슬픔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내용분석 범주표

N=18(100%)

구분	항목	상위범주	하위범주	세부내용	빈도	총계
슬픔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인식	신체표현	울음	18(100)	19(105.5)
				눈을 맞추지 않음	1(5.5)	
			표현에 대한생각	안쓰럽다	3(16.6)	12(66.6)
				안아주고 싶다	3(16.6)	
				함께 슬퍼해주고 싶다	3(16.6)	
				해결해 주고 싶다	3(16.6)	
			압박감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4(22.2)	8(44.4)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	2(11.1)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하고 속상함	2(11.1)	
			언어표현	언어로 표현함("엄마 나 속상해요", "슬펐어요")	4(22.2)	4(22.2)
			정서표현	시무룩해짐	1(5.5)	3(16.6)
				짜증을 냄	1(5.5)	
				고집을 부림	1(5.5)	
			표현에 대한느낌	당황스러움	1(5.5)	1(5.5)
		정서수용	조력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기에 해결방법을 같이 찾아 주려함	3(16.6)	6(33.3)
				감정조절 어려움이 있어 감정이 극대화 되지 않도록 조절해 줌	3(16.6)	
			해결방법 제시	공감 경험은 있지만 자녀에게는 인내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줌	4(22.2)	4(22.2)
			자율	혼자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자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함	2(11.1)	2(11.1)
			공감	공감해줌	2(11.1)	2(11.1)
			공유	함께 공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유하기를 원함	2(11.1)	2(11.1)
			훈육	공감받지 못해서 표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훈육함	1(5.5)	1(5.5)
			혼란스러움	공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음	1(5.5)	1(5.5)
		정서코칭	수용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준다	4(22.2)	9(50)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놔둔다	3(16.6)	
				감정이 누그러 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2(11.1)	
			대화	슬픈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5(27.7)	5(27.7)
			신체접촉	안아준다	3(16.6)	3(16.6)
			해결방법 제시	해결방법을 찾아준다	2(11.1)	3(16.6)
				의도적으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사용	1(5.5)	
			무수용	수용해 주지 않는다	1(5.5)	1(5.5)
		정서조절	건강한 표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가길 원함	7(38.8)	16(88.8)
				감정표현은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식	4(22.2)	
				자기 이해와 자기수용이 잘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3(16.6)	
				감정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람	2(11.1)	
			사회적 기준	감정표현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 안에서 표현이 되길 바람	2(11.1)	2(1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슬픔에 대한 자녀의 정서 반응 내용분석으로 첫째, 자녀의 슬픔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다. 신체표현이 19명(105.5%), 표현에대한생각이 12명 (66.6%), 압박각이 8명(44.4%), 언어표현이 4명(22.2%), 정서표현이 3명(16.6%), 표현에대한느낌이 1명(5.5%)로 응답하였다. 그 중'울음','눈을 맞추지 않음'으로 신체표현으로 나타내었을 때 자녀의 정서를 인식한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또한'안쓰럽다','안아주고 싶다','함께 슬퍼해 주고 싶다','해결해 싶다'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슬픔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이다. 조력이 6명(33.3%), 해결방법 제시가 4명(22.2%), 자율, 공감 ,공유가 2명(11.1%), 훈육과 혼란스러움이 1명(5.5%)로 응답하였다. 그 중'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기에 해결방법을 같이 찾아 주려함','감정 조절 어려움이 있어 감정에 극대화 되지 않도록 조절해줌'으로 자녀에게 조력적인 반응을 빈번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 경험은 있지만 자녀에게는 인내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줌'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슬픔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코칭이다. 수용이 9명(50%), 대화가 5명(27.7%), 신체접촉과 해결방법 제시가 3명(16.6%)로 응답하였다. 그 중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놔둔다','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려 준다'로 자녀의 슬픔 정서를 공감하고 수용해 주는 방식의 대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슬픈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자녀의 슬픔정서 조절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다. 건강한 표현이 16명(88.8%), 사회적 기준이 2명(11.1%)로 응답하였다. 그 중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가길 원함','감정표현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식하길 원함','자기 이해와 자기수용이 잘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함','감정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람'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슬픔정서 조절에 대해 건강하게 슬픔정서를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감정표현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 안에서 표현이 되길 바람'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 내용분석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을 내용분석하기 위해서 각 정서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상위범주는 어머니 상위정서를 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을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 정서코칭 구분하였고, 각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인식 하위범주는 '파괴력', '자기표현', '신체변화', '관계어려움'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수용은 '받아들여짐', '반감', '표현에 대한 느낌', '차단', '조력', '공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서조절은 '있는그대로표현', '다양한해결방법모색', '화제전환', '억압', '혼란'으로 구분하였다. 분노에 대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에서 정서인식 하위범주는 '신체표현', '정서표현', '표현에대한생각', '언어표현', '표현에대한느낌'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수용은 '혼란' ,'공감', '가르침', '조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서코칭은 '수용', '훈육', '무반응', '자립', '시선전환'로 구분하였고, 정서조절은 '사회적응', '자립', '인정', '건강한표현'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에 따라 분석한 내용과 빈도는 다음의 <표 9>, <표 10>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9>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내용분석 범주표

N=18(100%)

구분	항목	상위범주	하위범주	세부내용	빈도	총계
분노	어머니 상위정서	정서 인식	파괴력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	5(27.7)	20(111.1)
				나와 타인에게 파괴력을 주는 것	4(22.2)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	3(16.6)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3(16.6)	
				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함	2(11.1)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1(5.5)	
				해결 할 수 없는 것	1(5.5)	
				후회를 하게	1(5.5)	
			자기표현	상대방의 행동 교정을 위해 필요한 것	5(27.7)	9(50)
				억울함에 대해 표현하는 것	3(16.6)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1(5.5)	
			신체변화	소리를 많이 지르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	2(11.1)	8(44.4)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것	2(11.1)	
				얼굴이 빨개 지는 것	1(5.5)	
				손이 떨리는 것	1(5.5)	
				열이 확 오르는 것	1(5.5)	
				잠을 잘 수 없는 것	1(5.5)	
			관계 어려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1(5.5)	3(16.6)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	1(5.5)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	1(5.5)	
		정서 수용	받아들여짐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이 먼저 알아줄 때	8(44.4)	17(94.4)
				나의 말을 들어 줄 때	5(27.7)	
				공감대 형성이 된 사람들과의 감정 공유 할 때	4(22.2)	
			반감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감정이 일어날 때	8(44.4)	12(66.6)
				나의 말이 튕겨져 나올 때	4(22.2)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2(11.1)	
				권위와 복종으로 나를 누르려고 할 때	2(11.1)	
				나의 배려와 반응을 당연하게 여길 때	1(5.5)	
			표현에 대한느낌	미움	8(44.4)	10(55.5)
				미안함	1(5.5)	
				복잡함	1(5.5)	
			차단	수용에 대한 경험이 없음	3(16.6)	8(44.4)
				회피(관심을 갖어 주지 않았음)	3(16.6)	
				눈치를 봄	2(11.1)	
			조력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줌	2(11.1)	6(33.3)
				원인을 함께 찾아줌	2(11.1)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	2(11.1)	
			공감	공감(내편이 되어줌)	2(11.1)	4(22.2)
				감정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줌	2(11.1)	
		정서 조절	있는 그대로 표현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함	5(27.7)	10(55.5)
				신앙적인 힘(기도)	5(27.7)	
			다양한 해결방법 모색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음	3(16.6)	7(38.8)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려함	3(16.6)	
				술이나 친구들과의 수다를 통한 일시적 해소	1(5.5)	
			화제전환	다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화제를 전환함	4(22.2)	4(22.2)
			억압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참음)	3(16.6)	3(16.6)
			혼란	해결방법을 모름	2(11.1)	2(11.1)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어머니의 분노 정서에 대한 인식이다. 파괴력이 20명(111.1%), 자기표현이 9명(50%), 신체변화가 8명(44.4%), 관계 어려움이 3명(16.6%)로 응답하였다. 그 중'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나와 타인에게 파괴력을 주는 것','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부정적인 감정이라 생각함','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해결 할 수 없는 것','후회를 하게 하는 것'으로 응답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분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 인식은 파괴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 교정을 위해 필요한 것','억울함에 대해 표현하는 것','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분노 정서에 대한 수용이다. 받아들여짐이 17명(94.4%), 반감이 12명(66.6%), 표현에대한느낌이 10명(55.5%), 차단이 8명(44.4%), 조력이 6명(33.3%), 공감이 4명(22.2%)로 응답하였다. 그 중'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이 먼저 알아줄 때′ ,′나의 말을 들어 줄 때','공감대 형성이 된 사람들과의 감정 공유를 할 때'에 정서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응답반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감정이 일어날 때','나의 말이 튕겨져 나올 때','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권위와 복종으로 나를 누르려고 할 때','나의 배려와 반응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분노 정서에 대한 조절이다. 있는 그대로 표현이 10명(55.5%), 다양한 해결방법 모색이 7명(38.8%), 화제전환이 4명(22.2%), 억압이 3명(16.6%), 혼란이 2명(11.1%)로 응답하였다. 그 중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함', '신앙적인 힘인 기도를 할 때'로 분노 정서를 조절한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또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음','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려함','술이나 친구들과의 수다를 통한 일시적 해소'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0> 분노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 반응 내용분석 범주표

N=18(100%)

구분	항목	상위범주	하위범주	세부내용	빈도	총계
분노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인식	신체표현	눈물	14(22.2)	18(100)
				소리를 지름	2(11.1)	
				상대방을 때림	1(5.5)	
				눈을 흘김	1(5.5)	
			정서표현	똑같이 아프고, 화나고, 속상함	5(27.7)	9(50)
				답답함	2(11.1)	
				불안하고 걱정이 됨	1(5.5)	
				고집을 부림	1(5.5)	
			표현에 대한생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됨	3(16.6)	5(27.7)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짐	2(11.1)	
			언어표현	언어로 표현함	3(16.6)	3(16.6)
			표현에 대한느낌	다양한 감정표현에 신기함을 경험함	1(5.5)	2(11.1)
				자녀의 발달에 감사함을 느낌	1(5.5)	
		정서수용	혼란	공감의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음	6(33.3)	6(33.3)
			공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	3(16.6)	5(27.7)
				공감해주고 기다려줌	2(11.1)	
			가르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침	5(27.7)	5(27.7)
			조력	무조건적인 수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녀에게는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줌	1(5.5)	1(5.5)
		정서코칭	수용	감정을 수용해 줌	3(16.6)	9(50)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림	2(11.1)	
				다독여주며 안아준다	2(11.1)	
				공감대 형성 할 수 있도록 함	2(11.1)	
			훈육	가르침, 조언(대안제시)	5(27.7)	7(38.8)
				혼내고, 똑같이 화를 내게 됨	2(11.1)	
			무반응	무관심으로 대처	3(16.6)	4(22.2)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지 못함	1(5.5)	
			자립	감정 인식만 도와주고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함	3(16.6)	3(16.6)
			시선 전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주려함	1(5.5)	1(5.5)
		정서조절	사회 적응	사회적응을 잘 하고 살아가길 원해서	8(44.4)	8(44.4)
			자립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16.6)	3(16.6)
			인정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길 원해서	3(16.6)	3(16.6)
			건강한 표현	감정표현을 건강하게 표현하길 원해서	3(16.6)	3(16.6)

첫째, 자녀의 분노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다. 신체표현이 18명(100%), 정서표현이 9명(50%) ,표현에대한생각이 5명(27.7%), 언어표현이 3명(16.6%), 표현에대한느낌이 2명(11.1%)로 응답하였다. 그 중 '눈물' ,'소리를 지름' ,'상대방을 때림','눈을 흘김'으로 신체표현으로 나타내었을 때 자녀의 정서를 인식한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또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똑같이 아프고, 화나고, 속상함’,‘답답함’,‘불안하고 걱정이 됨’,‘고집을 부림’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분노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이다. 혼란이 6명(33.3%), 공감과 가르침이 5명(27.7%), 조력이 1명(5.5%)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 ‘공감의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음’으로 어머니가 정서에 대한 공감의 경험이 없어 자녀의 정서에 혼란스러움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공감해주고 기다려줌’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분노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코칭이다. 수용이 9명(50%), 훈육이 7명(38.8%), 무반응이 4명(22.2%), 자립이 3명(16.6%), 시선 전환이 1명(5.5%)로 응답하였다. 그 중 ‘감정을 수용해 줌’,‘감정이 누그러질 때 까지 기다림’,‘다독여주며 안아준다’, ‘공감대 형성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자녀의 분노 정서를 수용해주는 방식의 대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가르침, 조언 및 대안제시’,‘혼내고, 똑같이 화를 내게 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넷째, 자녀의 분노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조절이다. 사회적응이 8명(44.4%), 자립과 인정, 건강한 표현이 3명(16.6%)로 응답하였다. 그 중 ‘사회적응을 잘 하고 살아가길 원해서’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분노정서 조절에 대해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원해서’, ‘감정표현을 건강하게 표현하길 원해서’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분노정서 조절에 대해 자녀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자립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기를 바라는 것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비교

본 연구에서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내용을 7개의 상위범주로 분류하여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 및 코칭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상위 범주 중에서‘어머니의 정서인식’그리고 자녀의 정서반응에 대한‘정서수용’,‘정서조절’의 하위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슬픔 정서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인식은 '속상함'이 27명(38.8%),'성장'이 9명(50%),'관계 깨어짐'이 7명(38.8%),'우울함'이 7명(38.8%),'자연스러움'이 6명(33.3%),'걱정과 불안'이 6명(33.3%),'능률저하'가 1명(5.5%),'무 영향'이 1명(5.5%)'의 순으로 하위범주가 구성되었고, 분노 정서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 인식은 '파괴력'이 20명(111.1%), '자기표현'이 9명(50%),'신체변화'가 8명(44.4%),'관계 어려움'이 3명(16.6%)의 순으로 하위범주가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자녀의 슬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은 '조력'이 6명(33.3%),'해결방법 제시'가 4명(22.2%),'자율'과'공감','공유'가 각각 2명(11.1%),'훈육'과 '혼란스러움'이 1명(5.5%)의 순으로 하위범주가 구성되었고, 자녀의 분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은'혼란'이 6명(33.3%),'공감'과'가르침'이 5명(27.7%),'조력'이 1명(5.5%)의 순으로 하위범주가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슬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조절은 '건강한 표현'이 16명(88.8%),'사회적 기준'이 2명(11.1%)의 순으로 하위범주가 구성되었고, 자녀의 분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조절은'사회적응'이 8명(44.4%),'자립'과'인정'그리고'건강한 표현'이 각각 3명(16.6%)의 순으로 하위범주가 구성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1>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비교표

구분	상위범주	슬픔	분노
		하위범주	하위범주
어머니 상위정서	정서인식	**①속상함** ②성장 ③관계 깨어짐/우울함 ④자연스러움/걱정과불안 ⑤능률저하/무영향	**①파괴력** ②자기표현 ③신체변화 ④관계 어려움
	정서수용	**①받아들여짐** ②반감 ③외면 ④공감적반응 ⑤부담	**①받아들여짐** ②반감 ③표현에대한느낌 ④차단 ⑤조력 ⑥공감
	정서조절	**①있는그대로표현** ②생각전환 ③문제해결집중 ④소극적반응	**①있는그대로표현** ②다양한해결방법모색 ③화제전환 ④억압 ⑤혼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인식	**①신체표현** ②표현에대한생각 ③압박감 ④언어표현 ⑤정서표현 ⑥표현에대한느낌	**①신체표현** ②정서표현 ③표현에대한생각 ④언어표현 ⑤표현에대한느낌
	정서수용	**①조력** ②해결방법 제시 ③자율/공감/공유 ④훈육/혼란스러움	**①혼란** ②공감/가르침 ③조력
	정서코칭	**①수용** ②대화 ③신체접촉/해결방법 제시 ④무수용	**①수용** ②훈육 ③무반응 ④자립 ⑤시선전환
	정서조절	**①건강한 표현** ②사회적 기준	**①사회적응** ②자립/인정/건강한 표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및 논의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즉,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녀의 슬픔과 분노에 어떻게 반응을 하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유아를 둔 어머니 1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고자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하위범주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정자간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Katz와 Gottman(1986)이 개발한 부모 상위정서 인터뷰 질문지(PMEI: Parent Meta-Emotion Interview)와 Katz, Gottman과 Hooven(1994)이 함께 개발한 상위정서 코딩체계(Meta-Emotion Coding System)를 Nahm(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질문지와 코딩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상위범주를 분석틀로 하여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자녀의 정서표현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하위범주로 정서인식은 '속상함', '성장', '관계 깨어짐', '우울함', '자연스러움', '걱정과 불안', '능률저하'로, 정서수용은 '받아들여짐', '반감', '외면', '공감적반응', '부담'으로, 정서조절은 '있는 그대로 표현', '생각전환', '문제해결집중', '소극적 반응'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하위범주 각각의 내용을 토대로 논의해보면, 슬픔 정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애착 대상, 목표 또는 자신의 가치 있는 면이 상실되었다고 인지할 때 시작되며(Izard, 2000), 슬픔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력해지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고 타인의 시선은 회피한다는 선행연구(Izard, 2000)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슬픔은 절망, 비탄, 낙심, 동정, 연민 등과 관련된 정서로 자신의 목표가 성취될 수 없을 때 또는 포기되어질 때 일어나며, 주로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서라고 정의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유미라, 2003).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 슬픔 정서는 성장의 기회와 자연스러운 정서로 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식함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슬픔 정서는 주도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건강한 정서인식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준에 맞게 살 수 있게 하며, 관계에 대한 소중함과 행복감을 일깨워주는 성장의 기회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슬픔 정서 인식이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에서도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에게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되는 정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겪게 되는 정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운 정서로 인식하였다. 이는 슬픔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서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중 하나로 분류된다(Campos, Campos, Barrett, 1983; Kostelnik, Stein, Whiren, & Soderman, 198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슬픔 정서에 대한 동양문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볼 수 있겠다. 한국 정서 문화에는 '한(恨)'이라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은 슬픔 정서를 털어버리고 즐거운 정서를 갖고 살아가기 위한 방식으로 '한'의 정서를 표출해냈다(권수영, 2007). 그러나 그'한'은 슬픔이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겪어야 되는 정서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개선이나 저항정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긍정적 특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권수영, 2007). 이러한 슬픔에 대한 동양의 정서문화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슬픔 정서가 자연스운 것 이고,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되는 정서로 인식하며 슬픔 정서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다는 것에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슬픔 정서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편안함을 느꼈으며, 온전히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슬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표현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슬픔 정서에 대한 이해,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반응으로 보는 선행연구(유미라, 2003)와 유사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슬픔 정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정서적 경험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 전략 중 하나인 내면 심리적 대처반응과 직접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정서를 조절한다는 선행연구(유미라, 2003)와 관련이 있다고 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각된다.

마지막으로 슬픔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온전히 감정을 느끼고, 정서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키며,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서 조절 방법들은 우연히 정서만을 바꾸는 행동이 아니라 정서를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거나 사용되는 의도적인 방법이다(McCoy & Masters, 1986). 즉 개인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슬픔 정서에 대한 개인의 예방적 차원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 방법은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나 사회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모-자녀 관계 심리적 거리를 좁히며 정서를 공감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슬픔에 대한 자녀의 정서 반응의 하위범주로 정서인식은 '신체표현' ,'표현에대한생각', '스트레스', '언어표현', '정서표현', '표현에대한느낌'로, 정서수용은 '조력', '해결방법제시', '자율', '공감', '공유', '훈육', '혼란스러움'으로, 정서코칭은 '수용', '대화' ,'신체접촉', '해결방법제시' ,'무수용' 으로, 정서조절은 '건강한 표현', '사회적 기준'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하위범주 각각의 내용을 토대로 논의해보면, 울음이란 유아에게 있어서는 불쾌감이나 고통 혹은 환경에 의한 방해나 가족 혹은 친구로 부터의 소외 등의 사회적 의미를 갖기도 하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엄마 인형을 잃어버려서 슬퍼!","친구가 날 때려서 화가나","슬퍼","너무 좋아","행복해"그리고"무서워!","겁이나" 이것은 바로 유아들이 최초로 사용하는 감정단어들이다(Bretherton, Fritz, Zahn Waxler, & Ridgeway, 1986, 이은경, 1995 재인용). 또한 유아는 얼굴표정으로 잘 나타는 행복함, 슬픔, 화남, 놀람과 같은 단순 정서에서부터 얼굴표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수줍음, 자부심, 죄책감과 같은 좀 더 복잡한 정서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된다(Harris, Olthof, Meerum, Terwogt, & Hardman, 1987).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을 자녀가 신체로 표현할 때 인식하게 된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슬픔정서를 수용하는 어머니의 반응과 관련한 결과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어머니 자신의 원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정서경험이 자녀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강경애, 2004; 정미경, 2003; Benoit & Parker, 1994; Sroufe, Jacobvitz, Mangelsclorf, DeAngelo & Ward, 1985) 연관 지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논의해 본 다면 생애 초기에 경험한 가족관계는 인성의 기초가 되고, 그 개인이 새로 구성한 가족에서 어머니로서, 배우자로서의 정서행동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녀의 정서반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것(전현진 외, 1999)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슬픔을 자연스럽고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고, 아동기 경험에서 슬픔 정서를 수용받은 경험이 많은 경우 자녀의 슬픔 정서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길 수 있음을 추론해보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아동기 경험은 한국의 고유한 정서 문화와 세대 간의 진이 또는 연속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강경애, 2004; 정미경, 2003)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문화에 의한 다양한 감정적 분위기와 동일한 문화권내에서도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교육적 차이에 따라 다른 정서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러한 분위기 또한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Saul, 1971)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녀의 슬픔정서에 대한 코칭과 자녀의 슬픔정서 조절에 대한 반응 또한, 충분히 슬픔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스스로 조절 가능하게 도와준다는 반응이 가장 많이 보인 결과와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슬픔 정서에 대한 인식, 수용이 자녀의 슬픔정서에 대한 인식, 수용, 반응과 연관되어 살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하위범주로 정서인식은 '파괴력', '자기표현의 수단', '신체변화' ,'관계 어려움'으로, 정서수용은 '받아들여짐' ,'반감', '표현에대한느낌' ,'차단', '조력', '공감'으로, 정서조절은 '있는 그대로 표현', '다양한 해결방법 모색' , '화제전환', '억압', '혼란'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하위범주 각각의 내용을 토대로 논의 해보면, 분노 정서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상위범주 중 정서 인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분노와 슬픔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며 두 가지 정서 모두 부정적 정서들 중 가장 일반적이고, 부정적 정서 내에서 그 구분이 가장 명확했다는 선행연구(Goldberg, Lerner, & Tetlock, 1999; Lerner, Goldberg, & Tetlock, 1998; Niedenthal, Tangney, & Gavanski, 1994)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분노 정서는 슬픔정서보다도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는 기본 정서 중 하나이면서도 사회적 정서이다. 왜냐하면, 분노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타인에게로 향하기 때문이다. 일부 입장에서는 개인이 타인의 악행을 인식했을 때, 타인을 원망하는 것과 분노를 관련시킨다(Clore & Ortony, 1991). 분노의 원인은 타인에게 공격당하거나 부당하게 취급받았을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때 타인이 행동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목표를 향한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분노정서에 대하여 명확하게 부정적 정서로 보았으며 다양한 정서중 하나라고 여기기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나와 타인에 대한 파괴력을 경험하게 하고, 존재에 대해 무시할 때 표현되며,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상태이며 격노, 성가심, 좌절, 경멸, 걱정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분노정서가 주로 자신의 목표가 방해를 받아 좌절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소홀히 할 때 일어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유미라, 2003)와 일맥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동양의 정서 문화인 한국문화 속에는 분노정서와 연관시켜 살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없이 삭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정서 특징인 '한(恨)과 '정(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 문화는 가족주의, 공동체성, 연대감 등 관계지향적인 심리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여 제대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노에 대한 동양의 정서문화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분노 정서가 나와 타인에 대한 파괴력을 경험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로 인식하게 하며, 타인의 도움 보다는 스스로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표현하지 않고 참아버리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슬픔과 분노는 각각 상황, 과업과 관련된 정서의 경험에는 서로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넷째, 분노에 대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의 하위범주로 정서인식은 '신체표현', '정서표현', '표현에대한생각', '언어표현', '표현에대한느낌'으로, 정서수용은 '혼란', '공감', '가르침', '조력'으로, 정서코칭은 '수용', '훈육', '무반응', '자립', '시선전환'으로, 정서조절은 '사회적응', '자립', '인정', '건강한 표현'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하위범주 각각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는 본질상 회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처벌과 같은 부정적 통제전략으로 자녀에게 반응하곤 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우울할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Dix, Reinhold, 그리고 Zambarano(1990)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이 기분 좋을 때보다 화났을 때 자녀에게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밖에도 부모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부모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된다(Cole, Michel, & Teti 1994; Dix, 1991, 1992).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이 다시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Cassidy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2). 또한 분노 표현은 사회적인 규칙이나 기대가 위반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다(Averill, 1982). 타인의 분노나 당황의 표현은 현재 자신의 행동 반응을, 특히 계급 관계가 관여된 상화에서는, 조절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이다(Blair, 2003). 그 이유는 분노는 슬픔이나 공포와 달리 사회적 관계를 망치기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는 공감적 반응과 친 사회적 행동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overts, & Strayer, 1987).

본 연구의 참여자인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의 정서 에 대한 반응 수용에서 자신의 자녀기 정서 경험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수용과 경험정도가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다는 응답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자녀기 양육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부모를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으로 회고하거나, 거부적으로 회고한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부적응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던 (Plantes, Prusoff, Brennan, Parker, 1988) 결과와 연관됨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의 비교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한국은 감정을 억압하는 가족 문화가 형성되어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부모는 그 의견을 반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나의 자녀가 '혹시나 버릇없이 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권수영, 2007).,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도덕적 기준 안에서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봐'라는 응답내용과 일치한다. 그래서 정서에 대한 경험에서 분노 정서에 대해 수용받지 못하고 차단당하고 무시, 회피를 경험했던 이유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어른들이 자신의 자녀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면 버릇없다고 느끼고 말대꾸로 받아들여 무조건 화를 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력을 경험하게 하고 표현 후 겪게 되는 정서들이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깨뜨리게 될까봐 두려워 참고 견딘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섯째,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의 상위 범주에 따른 하위범주의 구성과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상위정서에서 '정서인식' 그리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에서 '정서수용', '정서조절'의 응답내용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 우선순위가 정서수용은 '편안함'으로 일치하였고, 정서조절은 '있는 그대로 표현'으로 일치하였지만 정서인식에서 슬픔 정서는 '속상함'으로, 분노 정서는 '파괴력'으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의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 우선순위가 정서인식은 '신체표현'으로 일치하였고, 정서코칭은 '수용'으로 일치하였지만 정서수용에서 슬픔 정서는 '조력'으로, 분노 정서는 '혼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조절에서 슬픔 정서는 '건강한 표현', 분노 정서는 '사회적응'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정서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슬픔과 분노 정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가령,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부모들은 스스로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Beck, Emery & Greenberg, 1985), 자녀의 정서표현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 표현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가 슬픔, 분노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할 때 이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함께 공감하며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여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탐색하고 명료하게 지각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반면 정서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도나 불복종 또는 나쁜 성격을 반영하며 자녀의 슬픔은 무능력과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믿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정적 정서의 경험과 그 표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할 것이다(Gottman, Katz, & Hooven, 1997).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와 그 발달에 관하여 고유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정서와 관련된 태도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egotardi, Torr & Cross, 2008; Dix, 1991; Dunsmore, Halberstadt & Perez-Riviera, 2009; Dusmore & Karn, 2001; Gottman, Katz & Hooven, 1996; Harkness & Super, 1996; Rulbin & Chung, 2006).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녀의 정서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생각에 대하여 Gottman과 동료들이 개념화한 상위정서 철학(meta-emotion philosophy)은 분노에 대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자녀 양육과 어머니-자녀 관계 그리고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불안해 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은 어머니가 수용해 주지만 짜증을 내거나 화난 감정은 수용이 안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부정적 정서도 통합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각 정서에 따른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어머니가 스스로 살펴 정서에 대한 자녀양육에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의 실제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위정서철학을 이해하고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면담이라는 연구방법이 갖는 과정적 경험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개인의 경험을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내용분석을 통해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적절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한 만큼 자녀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정서에 대해 통찰하고 성장한 만큼 자녀도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해 통찰하고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표현방법, 양육태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서를 간과했던 것, 정서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어머니의 성장과 자녀양육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인 만큼 자신의 상위정서철학을 살펴보는 면담은 자녀에게 정서와 행동 등의 모델링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는 유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며,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안진·이지선, 1999; Denham, 1997)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면담 과정을 통해 경험한 생각과 정서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기가 가진 내면의 다양한 부분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즉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신의 정서에 대한 내면적 반응을 더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의 정서와 정서에 따른 생각과 행동이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정서에 대해 알아차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자신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정서인식 즉, 상위정서철학을 개념화하고 정립해 나아가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이끌었으며 참여자가 인터뷰 이후에도 '나를 찾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피드백은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해주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요컨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분석한 결과 슬픔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분노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상위정서 인식,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수용과 조절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슬픔 정서는 타인에게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한 정서로 속상하지만 정서 수용의 반응에 따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정서표현 반응에도 조력과 해결방법을 제시해준다거나 자녀가 정서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기준안에 맞춰서 표현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분노 정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파괴력을 경험하게 하여,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걱정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 억압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정서표현에 어떻게 반응 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훈육을 하게 된다거나 자녀들이 사회적응을 잘하고 자립하기 위해 정서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정적 감정표현 즉 화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어머니의 슬픔과 분노정서에 따라 자녀의 슬픔과 분노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는 국외연구 결과를 국내연구에 적용하여 부정적 정서를 통합적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슬픔과 분노의 정서를 구분하여 살펴 본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슬픔과 분노 정서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의 실질적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수용하며,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것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정서가 안정되고 편안해야 자녀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편안하여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자신의 심리상태를 알고 있어야 자녀의 슬픔과 분노에 대처하는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자신의 정서를 조절 할 수 있게 되고, 정서에 대한 대처능력도 생겨서 자녀의 정서에 반응에 대해 이해하는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슬픔과 분노의 정서를 구분하여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먼저 부모가 자신의 정서 인식과 반응에 대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유아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달 시기에 따른 정서 인식과 수용, 코칭,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에 대한 보호차원과 지지자원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을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설문지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터뷰법을 통해 연구결과에 질을 높였다는 것이다.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인터뷰는 연구자가 어머니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 설문지로는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정서와 관련된 개인의 독특성인 가정환경, 분위기, 비언어적 표현 등을 포함한 정서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 환경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원 가족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들보다는 객관적이고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있더라도 오히려 어머니 개인의 주관성과 슬픔과 분노 정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 모-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은 상기한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슬픔과 분노에 따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고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 또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유아의 특성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짐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유아의 정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분석과정에서 하위 명명구성에 따른 타당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탐색적 목적이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어도 더 타당성이 있는 다각적 검토과정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의 자문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탐색하기 위해 인터뷰법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상위정서 및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모두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스스로 지각한 것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결과를 해석하게 되었다. 즉, 유아기 자녀의 입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대해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자녀가 스스로 지각한 정보를 얻는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에서의 관점과 어머니의 관점에서의 정서 경험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슬픔과 분노에 따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슬픔과 분노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분석 방법을 통하여 심도있게 탐색하였으며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정서에 대한 통찰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을 자각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와의 정서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회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자료가 좀 더 어머니와 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녀관계에서 정서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강경애 (2004). **양육행동에 관련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배우자 및 사회적지지.**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수영 (2007). **한국인의 관계심리학**. 살림.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김경희 (2004). 자녀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5**(6), 355-370.

김미성, 전귀연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207-228.

김민아 (2014). **유치원 학부모의 상담 질문 내용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아신 (2009). 상위기분과 문제해결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 **인간이해, 30**(1), 81-95.

김유진, 신희천 (2013). 상위-기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839-856.

김정동 (2013).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모-자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2**(5), 12-28.

김현주 (2005). **상위기분과 공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소현, 김영희 (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자녀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152**(), 199-213.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2), 57-71.

박찬욱, 김형수 (2008). CRM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13**(1), 69-92.

배지우 (2010). **부모상위정서철학과 양육태도 및 자녀 행동문제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미혜, 주경숙 (2007). 초산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태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1), 1-9.

성태희 (2013). **어머니 상위정서철학과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및 우울수준 간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수정 (2013).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자녀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하나 (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의 정서적 적응이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신진주 (2015).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자녀의 탄력성 및 분노수준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주혜, 정윤경 (2013).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6(3),

안라리 (2008).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6(2), 1-12.

오익근 (2000). 내용분석의 관광연구 활용. **관광학연구**, 31, 317-211.

오지현 (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아동학회지**, 34(6), 97-122.

유미라 (2003). **화·슬픔상황에서 자녀의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혜린 (2013).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의 관계:어머니와 교사지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 (1996). **유아의 정서변별에 관한 실험적 연구:6세 유아의 분노와 슬픔을 위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서리, 남은영 (2012). 부모의 상위정서 양육방식, 자녀의 정서표현 갈등 및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35-50.

이정민 (2010).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부정적 정서, 상위인지, 상위-기분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순, 조희숙 (2005).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논집, 9(2), 43-58.

이지선, 유안진 (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자녀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한국아동학회지**, 20(3), 123-137.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진선, 정문자 (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이혜련, 최보가 (2002). 학령 전 자녀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03-112.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자녀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자녀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전현진, 박성연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0**(3), 153-169.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5**(2), 107-128.

정윤희 (200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난이 (2015).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자녀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및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연화 (2012).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 유아의 정서적 기질, 어머니의 정서인식, 정서신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24**(1), 239-257.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Barrett. K. C., & Campos. J. J.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Wiley, 555-578.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radley, S. J. (2000).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Y: Guilford press.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63.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73-100.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The Guilford series on Special and emotion development.*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gy, 30(6).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emotional comper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Dix, T., Reinhold, D. P., Zambarano, R. J. (1990). Mother's Judgements in miments of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6, 456-486.

Dunn, J., & Brown, J. R.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Dunn, J., Brown, J. R.,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a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Newbury Park, CA : Sage. 119-15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eren's negative emotion: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Eisenberg, N., Cumv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 Guthrie, K. L.,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net, 72(3).

Fabes, R. A., Poulin, R. E., &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 : Psychometri prorerties and real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Garner, P. W., Robertson. S., & Smith. G. (1997).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s with peers: Ther roles of gender and emotion socialization. *Sex Roles, 36*(11/12). 675-691.

Gottman, J.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Y: Simon and Schuster.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m 10*(3), 243.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

Hubbard, J., & Coie, J.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lp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

John M. Gottman, Lynn Fainsilber Katz, & Carole Hooven. (Ed.). (2013). *Meta emotion:how families communicate emoionally*. NY:Lawrence Erlbaum Associates.

Kennedy, J. (1992). Analyzing qualitaive data-log-linear analysis for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 Praeger.

Katz, L. F., & Gottman, J. M. (1986). *The meta-emotion interview.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anet of Psychology, Seattle, WA.

Katz, L. F., & Gottman, J. M. (1991). *The meta-emotion interview*. Unpublished research manual,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attle, WA.

Katz, L. F., Mittman, A., & Hooven, C. (1994). *The meta-emoion coding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ma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Kim, Y. M, (2005). **뇌를 통해 본 아동의 정서이해**. 서울: 학지사.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Ladd, G. W., & Le Sieur, K. D. (1995). Parents and children's peer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 Hilsdale,NJ:Earlbaum.

Lewis, M., & Saarni, C. (1985). Culture and emotion. In Levis, M., & Saarni, C.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102-135. NY: Plenum Press.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ren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4). New York : Wiley.

McFadyen-Ketchum, S. A., John E. B., Kenneth A. D., & Gregory S. P.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ender Differeces in 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5), 2417-2433.

Nahm, E. Y. (200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pare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child interaction.*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Washington.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Salovey, P., & Sluyter, D. J.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Y: Basic Books.

Sarrni, C. (1991). *Social context and management of emotional-expressive behavior. Children's expectancies for when to dissemble what they feel.*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Shields, A., Dickstein, S., Seifer, R., Givsti, L., Magee, K. D., & Spritz, B. (2001). Emotional competence and Early School Adjustment: A study of preschoolers at risk. *E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73-96.

Thompson, R.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b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n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Zeman, J. & Shipman, K. (1997). Social-contextual influences on expectancies for managing anger and sadness: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9), 917-9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 록

부록 1. 가정통신문

부록 2. 동의서

부록 3. 인터뷰 질문지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1.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 박지선입니다.

저는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meta-emotion philosophy) 내용분석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 하실 경우, 어머니의 인터뷰를 요청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 어머님께서 경험하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되돌아보고, 자녀의 정서와 관련된 반응을 확인해 봄으로써 상위정서철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정보에 대해 얻고,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 반응과 능력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인터뷰는 약 30~40분정도 진행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되며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저의 연구에 참여해 주실 만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 박지선
연락처 : 010-4357-0855/pjs871215@naver.com
지도교수 : 오지현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2. 동의서

동 의 서

연구제목

:슬픔과 분노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meta-emotion philosophy) 내용분석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이후 다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은 설명문 및 작성된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결과, 본인은 이 연구에서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성명 :　　(서명)　　날짜　2015년　　월　　일

연구 책임자 성명 : 박지선　(서명)　　날짜　2015년　　월　　일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3. 인터뷰 질문지

질 문 지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아동상담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어머니 자신 및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와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며,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위한 인터뷰로 실시될 것입니다.

본 질문지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평소 어머니의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될 뿐 만 아니라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연구는 자발적 참여 동의하에 진행되며 참여에 원치 않으신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는 본 원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참가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가능합니다.

응답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상담 전공
연구 책임자 석사과정 박지선
연락처 : 010-4357-0855/pjs871215@naver.com
지도교수 : 오지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다음의 해당 사항에 V표 또는 적절한 답을 적어주십시오.

1. 자녀의 성별: 남자( ), 여자( )
2. 자녀의 출생년월 : 20 년 월
3.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 ( ) ② 어머니 ( ) ③ 형제, 자매 ( ) ④ 할아버지( )
⑤ 할머니 ( ) ⑥기타: (직접 적어주십시오.)

4. 부모님의 연령을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세, ·어머니: 세

5. 부모님의 교육 정도를 나타내는 칸에 v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교육정도	아버지	어머니
①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②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④ 전문대(2년)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졸업		

B. 다음은 어머니와 자녀의 '슬픔'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1.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2. 어머니가 경험하신 가장 슬펐던 상황에 대해 말해 주세요. 그때 내면에 일어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나요?

3. 어머니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어머니의 슬픔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나요?

5. 당신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은 슬픔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주었나요?

6. 어머니의 삶에 슬픔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자녀

1. 어머니의 자녀가 슬픔을 경험했을 때 주로 어떻게 표현했을 하나요?

2. 자녀의 슬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어머니의 반응, 생각,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이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나요?

4. 어머니의 과거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나요?

5. 최근의 자녀가 경험한 슬픈 상황을 답해주세요. 또는 한번정도 발생했던 생생한 예를 답해주세요.

C, 다음은 어머니와 자녀의 '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항을 하나하나 잘 읽으신 다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1.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2. 어머니가 경험하신 가장 화가 났던 상황에 대해 말해 주세요. 그때 내면에 일어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나요?

3. 어머니는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어머니의 분노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나요?

5. 당신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은 분노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주었나요?

6. 어머니의 삶에 분노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자녀

1. 어머니의 자녀가 분노를 경험했을 때 주로 어떻게 표현했을 하나요?

2. 자녀의 분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어머니의 반응, 생각,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이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나요?

4. 어머니의 과거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나요?

5. 최근의 자녀가 경험한 분노한 상황을 답해주세요. 또는 한번정도 발생했던 생생한 예를 답해주세요.

◉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ollection @ chosun